제2014-2호(통권 14권)

KO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NEWSLETTER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발행인 **임 현 진**

www.kossrec.org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02 권두언
현대사상의 빛과 그림자
김 복 규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04 아시아 사회과학협회 (ASSA) 창립대회 참관기
이 진 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차기 회장)

06 영국 경제사회연구위원회 (ESRC) 방문기
박 찬 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08 세계사회과학협의회 (ISSC) 방문기
황 석 만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총무위원장

10 경제학의 백화제방과 이종교배
장 하 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14 학회동정

16 협의회행사 / 프로그램

19 소식란

20 학회 임원진 소개

권두언
현대사상의 빛과 그림자

김 복 규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서양사상의 명암

그동안 나는 깊은 성찰 없이 서양의 현대사상에 이끌려 살아왔다. 따라서 단서(端緖)는 거기에서 찾아보는 것이 마땅한 순서일 것 같다. 일반적으로 서양사상의 토대는 과학주의, 실용주의, 실존주의라고 한다. 과학은 기술의 만능성(萬能性)을, 실존은 인간의 주체성(主體性)을, 그리고 실용은 생활의 유용성(有用性)을 드높여 왔으며 그 덕택으로 인류는 더욱 건강해지고, 물품은 더욱 풍요해졌으며, 생활도 대단히 편리해져서 인간의 쾌락지수가 꽤 높아졌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밝음의 뒤안길에는 인간의 인격이 상실되어 상품화되고, 경쟁이 투쟁으로 변하여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자연이 파괴되어 재앙이 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어 인간을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 된다.

사회과학협의회 출범 첫해 은사님을 모시고 조교를 한 기억이 새롭다. 지금은 기록에도 없지만 당시 만든 "학회편람"이 아마도 협의회의 첫 사업이었지 않을까 짐작한다. 사회과학의 영역에 들어와 학문을 닦은 지도 벌써 45년,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 이제 마무리할 때를 맞고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무엇을 배우고 익혀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에 기여했는지 딱히 떠오르는 생각이 없다. 왜 그러할까? 섬광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내가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을 바친 진리가 없었다는 점이다. 뒤늦은 후회지만 진리의 바른 길을 탐구해서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하는 전환의 계기로 삼고 싶다.

우리가 믿고 기대며 받들었던 서양의 현대사상은 그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그 답을 내 놓을 수 있을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세기전 계몽주의시대의 천재들은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여 물질적 풍요를 가져와서 최대다수에 최대행복을 가져다주며, 누구라도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와 정직한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사회를 건설한다."라는 위대한 약속을 한 바 있다. 계몽주의가 현대사상의 뿌리여서 그런지 오늘날 사회과학자들의 견해도 이와 흡사한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학기술의 전지전능성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외람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감히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여서 그가 만든 사상이나 이론들은 과학 분야든 기술 분야든 전지전능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하나요, 육체와 물질문화가 극성할수록 정신과 마음의 양식은 그에 반비례하여 끊어진다는 사실이 그 두 번째 이유이다. 서양의 현대사상이 현대 상황에서 제기된 병인(病因)을 고치는데 한계가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해결의 열쇠가 되는 바른 길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인의 병적 양태로 나타나는 이기적·극단적 인간, 약육강식의 살벌한 인간관계, 인간만을 위한 무자비한 자연파괴, 물질과 금전만능제일주의로 인한 불신앙 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서양의 철학, 윤리, 자연, 종교의 기본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양사상의 재조명

방황 끝에 동양의 고전에 눈을 돌려 본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하늘처럼 받들어 오던 성인(聖人)의 말씀은 서양의 과학적 방법론에 미치지 못하고 심적이며 형이상학적 성격 때문에 우리 사회과학도에게 천시를 받아 방기되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동양사상이 현대의 병을 치유하는 묘약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아이러니하게도 서양의 석학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실로 앞에서 살펴본 병든 현대인은 불교의 "참 나를 깨달아라.", 유교의 "너를 받들어 모셔라", 도교의 "자연에 따르라"는 가르침으로 능히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것이 바로 동양의 철학, 윤리, 자연과 종교의 종지(宗旨)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일찍이 Hegel은 "사상(思想)이란 황혼이 오면 나르는 Minerva의 올빼미가 아니고 전도를 비쳐주는 미래의 광명(光明)이다."라고 하였다. 암흑에서 광명을 구하고 고난에서 행복을 구할 수 있는 진리가 성인의 메시지에 담겨 있다면 동양사상의 심연을 탐구해 보는 것 역시 우리들의 책무(責務)가 아니겠는가! 인간의 이기적 오욕(五慾)은 석가의 무아정신(無我精神)으로, 인간관계의 교만은 공자의 겸손(謙遜)한 마음으로, 인간의 무자비한 자연정복은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하는 자세로 치유하는 것이 최고의 묘책일 듯도 하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진리의 바른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싶다.

아시아 사회과학협회 (ASSA) 창립대회 참관기

이 진 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차기 회장)

2014년 9월 19~20일 아시아사회과학협회(Asia Social Science Association) 창립 준비 work-shop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KOSSREC)의 대표자격으로 임현진회장님을 대신해서 다녀왔다. 떠나기 전부터 새로운 국제학회가 창립되는 대회라 약간의 긴장이 되었다.

기존의 세계사회과학협의회 아시아 지부가 아닌 인도사회과학협의회와 세계 개발 리서치 센터(ICSSR-IDRC)가 공동으로 새로운 사회과학 관련 조직을 창립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조직에 우리 KOSSREC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될 지 때문이었다. 임 회장님과 장원호 사무총장과 일단 충분히 상의한 후 현장에서 상황을 보며 적절히 행동하는 방향으로 임무를 정하고 출발하였다.
주최 측 비용으로 참관하는지라 약간 마음이 무거웠고 무언가 값어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었다.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방콕 중심부에 위치한 Arnoma호텔에서 19, 20일 양일간 진행된 회의는 예상대로 인도를 필두로 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표들이 주로 적극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인도 중심으로 파키스탄, 스리랑카, 몰디브가 더욱 적극적이었고 그 외 태국, 부탄 등 인도 주변 국가들이 곁들어 새로운 협회(ASSA)의 출발을 돕고 있었다.

사실 중국, 일본, 한국 대표도 참가하고 있었지만 일단 인도 사회과학협의회 측이 세밀하고 잘 설계된 추진안을 갖고 진행하였기에 다른 나라들의 대표들은 원안대로 함께 끌려가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

아무튼 각 나라 대표들은 각자 속해있는 본국의 사회과학협의회 활동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적 당면 이슈가 무엇이며 이를 아시아인의 안녕을 위해 어떻게 연구하며 함께 협동하여 해결해 갈 것인가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본인도 한국대표로서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활동현황을 설명하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 국가기관이 아니라 교수, 연구자들의 사적 성격이 강한 모임이며 UNESCO등의 국제기관과 연관을 갖고 꾸준히 사회적 이슈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실 다른 국가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사회과학협의회 대표들은 대부분 정부 관료들이 많았다. 더구나 많은 국가들이 사회과학협의회를 공공기관처럼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고 사회과학협의회 활동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같다.

ASSA는 인도가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고 한중일은 아시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학문적으로 강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함께 협동하여 아시아 사회과학공동체를 이끌어 가자는 것이 핵심사항인 것 같았다. 문제는 ASSA를 지속가능하게 이끌어 가는 일인데 이를 위해 매년 순번적으로 돌아가며 아시아 대회를 개최하고 재정적 자립을 위해 각국이 경비를 할당하는 문제들이 숙제로 남았다.

결국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창립 상임 이사회 멤버로 참가되었고 참가한 모든 사회과학협의회의 이름으로 ASSA 창립 협정서(Memorandum of Association of ASSA) 를 선포함으로 폐막하였다.

귀국하여 모든 사항을 임원진에 보고하고 회장님, 사무총장, 임원들과 협의한 후 일본사회과학협의회와 공조하여 아직은 관찰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 공식적인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격이 비슷한 2개의 기관에 정식 멤버가 되어 활동하는 것이 약간의 risk가 있을 것 같고 재정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으므로 현재는 ASSA에 관한 한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영국 경제사회 연구위원회 (ESRC) 방문기

박 찬 욱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필자는 금년 6월 중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학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임현진 회장을 비롯한 관련 교수 및 연구원들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지역의 수개 대학과 연구소를 방문했다. 방문자 일행은 6월 18일 오전 옥스퍼드 대학에 들렀다가 오후에 한국사회과학협의회(KOSSREC)의 공식방문으로 마련된 일정에 따라 영국 경제사회연구위원회(이하 ESRC: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로 향했다. 옥스퍼드에서 스윈든(Swindon)까지 기차로 이동했는데 ESRC가 있는 폴라리스 하우스 건물은 역에서 통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가까이 위치해 있다.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가량 ESRC 관계자를 면담하는 기회를 가졌다. ESCR 사무처의 연구·협력·국제국장이자 경제학박사인 아드리안 알솝 (Adrian Alsop)과 그 휘하 국제팀장 마이클 브라이트(Mike Bright) 양인이 면담에 응해주었다.

영국의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은 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연구위원회의 예산 수입은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로부터 받는 공공자금이다. 연구위원회는 매년 의회에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한다. 그런데 연구위원회는 기업혁신기술부의 직속기관은 아니며 그 부처 장관이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하여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하는 독립기관이다.

연구위원회는 분야별 7개 위원회로 나누어지고, 각 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대학, 기업 등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지원한다. 이는 ESRC외 생명공학연구위원회(BBSRC,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공학자연과학연구위원회(EP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의학연구위원회(MRC, Medical Research Council), 환경과학연구위원회(NERC,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예술인문연구위원회(AHRC,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와 과학기술장비위원회(STFC, Science and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를 포함한다.

ESRC는 경제와 사회 이슈에 대한 연구와 미래의 사회과학자 육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는 영국에서 가장 큰 조직이다. 1965년 사회과학연구위원회로 창설되었다가 1983년 경제사회연구위원회로 개칭되었다. 대처 총리가 집권하던 시기에 사회과학 연구의 가치와 그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의 범위가 논란이 되면서 보다 경험적인 연구, 공공관심사에 적합한 연구를 포괄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ESRC의 사명 내지 역할은 다음과 같은 6가지 키워드로 집약된다. 그것은 연구(research, 수월성 있는 연구에 대한 지원), 훈련(training,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되고 수준 높은 연구자 육성), 공동협력(partnerships, 학계, 공공 및 민간 부문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기반(infrastructure, 양질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그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세계 수준의 자료 기반을 확장하고 연구방법 개발을 지원), 그리고 국제적 리더십(international leadership, 글로벌 이슈와 관련하여 영국 사회과학자들과 전 세계의 연구자들의 협력을 촉진)이다(상세한 내용은 http://www.esrc.ac.uk 참조).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ESRC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ESRC Council)는 의장, 사무총장(집행부 최고위 책임자; 2014년 10월 이래 제인 엘리옷 Jane Elliot 교수)과 학계, 정부, 기업을 대표하는 이사들로 구성되며 정책, 전략, 예산 및 주요 자금지원을 승인한다. 이사회 산하에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5개 위원회(교육기술위원회, 연구위원회, 방법기반위원회, 회계검사위원회, 평가위원회)와 더불어 2개 네트워크(국제 네트워크, 영향력 네트워크), 동료평가단(Peer Review College), 3개의 지원평가패널(Grant Assessment Panel)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사무처에는 120명의 직원이 2개의 국으로 나누어져 배치되어 있다.

ESRC는 2013/14회계연도에 연구와 훈련을 위한 지원금으로 2억 1천2백만 파운드를 지출했다. 최근 환율로 치면 약 3,689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6천4백만 파운드(약 1,115억 원)가 빅 데이터 관련하여 쓰였고, 5천만 파운드(약 870억 원)은 2,500명의 박사과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었다.

필자 일행이 만난 관계자 2인은 모두 ESRC의 국제적 전략을 강조하였다. 영국 학자들이 외국의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과 협업하고 영국의 사회과학을 국제적으로 홍보·고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사회과학자도 영국 연구자와 공동연구 등 협력과 교류를 위해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ESRC는 이미 영국의 사회과학자와 다른 유럽 국가는 물론 중국의 연구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 실적이 있다.

공공재원으로 사회과학의 연구와 학문발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영국의 ESRC와 성격이 꼭 같은 한국의 기관은 없다. 기능적으로 가장 유사한 경우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본부라고 하겠다. 물론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부분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런데 ESRC의 운영 방침에서 우선 배워야 할 것은 공개적인 경쟁과 투명한 평가를 통해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가 공공정책과 시장이나 시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며, 공공자금으로 지원함에도 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향하는 데에 애쓰고 있는 점이다.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 훈련, 빅 데이터 등 기반자료 확충, 영국 사회과학과 연구자들의 세계적인 위상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E·S·R·C
ECONOMIC
& SOCIAL
RESEARCH
COUNCIL

세계 사회과학협의회 (ISSC) 방문기

황 석 만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총무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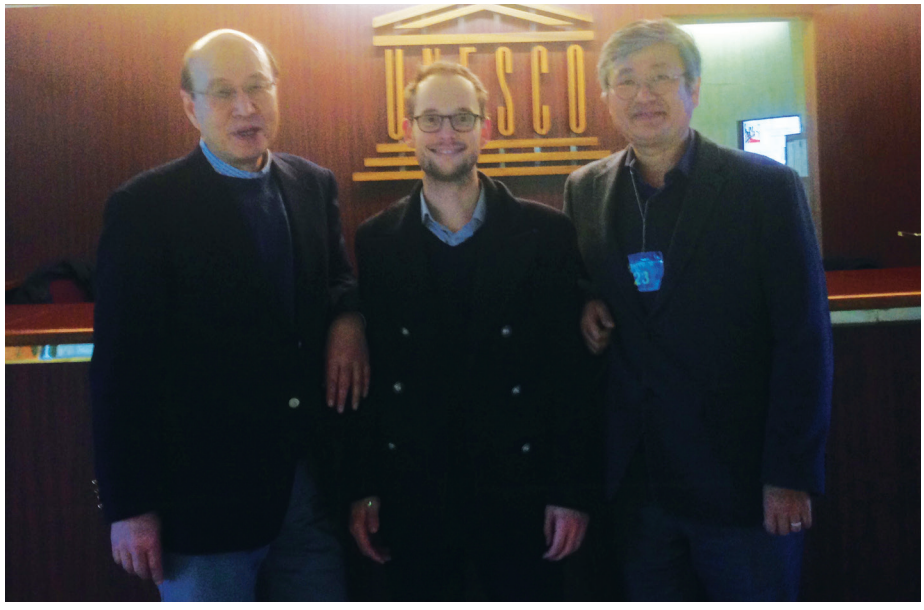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2018년 세계 사회과학포럼(World Social Science Forum)을 한국에서 유치할 의향서를 세계사회과학협의회(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에 제출한 바 있다. 세계사회과학포럼은 예상 참가자 1000여명, 경비가 약 26억원으로 추정되는 규모가 큰 대회이다. 그러므로,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과학계는 이미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임현진 회장과 총무위원장은 파리 세계사회과학협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하여 세계 포럼에 대한 보다 생생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12월 내내 비가 내리고 우울하다는 파리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밝게 해가 비치던 12월 9일 유네스코(UNESCO)에 있는 세계사회과학협의회를 방문하였다. 세계화된 오늘날, 테러 위협도 세계화되어 평화로와 보이는 파리 중심지에 있는 유네스코 방문에도 엄격한 보안검색이 필요했다. 우리 일행은 신분증을 맡기고 가방을 검색대에 통과시킨 후 리셉션을 거쳐서 관계 담당자가 직접 현관으로 우리를 마중 나온 후에야 건물 내 면담 장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

면담장소는 유네스코 지하층에 있는 카페테리아였다. 담당자인 Mr. Mathieu Denis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직접 마실 것을 구매해 가져다 주었다. 다른 기관 방문 시 그 기관 회의실에서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회의하는 것과는 딴 판이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세계사회과학협의회 역사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알게되었다.

세계사회과학협의회는 유네스코 후원에 의해 설립되었고 프랑스 정부의 법률에 의해 등록된 단체이기는 하지만, 실제 재정 지원은 주로 스웨덴개발기구 (SIDA) 그리고 부수적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지원에 기대고 있다. 그래서 2009년 첫번째 세계 포럼을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었던 것이다. 현재 세계사회과학협의회의 전임 인력은 8명으로 그 외에 몇 명의 인턴이 있다고 한다. 세계사회과학협의회는 사무실과 회의실 등 자체 시설은 없고 유네스코의 지원하에 몇 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일행은 먼저 세계사회과학포럼 개최 비용에 관한 질문을 했다. 비용은 개최와 개최 전후에 필요한 비용으로 나뉘어지는데, 개최에 필요한 비용은 약 백만 유로, 개최 전후에 필요한 비용이 약 백만 유로로 해서 약 이백 만 유로, 약 2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비용은 부분적으로 참가자들의 참가비에서 충당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개최 국가가 부담해야한다. 컨벤션 센터 임차, 저명 초빙 인사, 회의 운영 비용 등에 예산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Mr. Denis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 번 개최된 세계사회과학포럼은 각각 다른 형식의 재정충당 방식을 활용했다. 베르겐 대회는 정부와 대학, 지역사회 지원을, 몬트리올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체 지원을 상당히 받았고, 남아공은 주로 국가지원으로 재정을 충당했다. 한국의 경우는 한국 사정에 맞는 방법(국가 지원 + 대기업 지원)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r. Denis는 우리가 요구할 경우 자세한 정보 제공을 약속하였다.



2018년 차기 대회와 관련 현재 다섯 개 국가, 여섯 개 단체에서 개최를 요청했다. 한 국가에서 두 개 단체가 독립적으로 개최를 요청해서 국가 수 보다 단체수가 많다. 차기 대회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먼저 세계 협의회는 이번 달 중에 이사회를 열어서 개최지 결정에 관한 논의를 한다. 개최지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력한 방법은 먼저 유치 신청서를 검토하고 두 개 정도의 후보를 정해서 텔레컨퍼런싱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요청, 인터뷰를 실시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달리 2015년 더반 회의에서는 개최지 결정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된 차기 개최지 소개를 하는 것이다.

지난 개최지 결정과정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2013년 회의 개최를 놓고 중국과 남아공이 경쟁했는데, 중국이 선정되었고, 남아공은 2015년 개최하게 되었다. 그런데, 선정된 후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국이 개최를 반납하였는데, 남아공은 이미 2015년 준비를 시작한 상황에서 2013년 개최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가 유치를 희망하여 2013년 회의가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회의 개최 방식, 현재 세계 협의회가 진행 중인 연구, 여기에 한국 사회과학자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하였지만, 이 글의 목적인 세계 포럼 유치와는 거리가 있어 다른 기회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방문으로 명확해진 것은 세계포럼이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개최국가가 26억원 정도의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젊고 작은 조직에 기반한 국제회의에 이 정도의 재정 투자가 적절한 것인지에 해서는 한국 사회과학계가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개최지 결정이 목전에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 개최권을 스스로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우리 학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진지한 토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학의 백화제방과 이종교배

장 하 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요즘 경제학 서적들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부제를 보면 'everything'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책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종의 과대망상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요즘 경제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가 내리는 경제학의 정의 자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경제학이란 게 희소성을 지닌 수단과 목적성의 관계로서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과학, 다시 말해 '합리적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라는 정의 말이다. 이 정의에 근거해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를 비롯해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면 주제는 어떤 것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주장을 한다. 베커는 결혼의 경제학, 사랑의 경제학, 마약중독의 경제학, 범죄의 경제학 같은 책을 썼다. 최근에는 프리코노믹스(괴짜의 경제학) 등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져 왔다. 그런데 실은 프리코노믹스란 책에 경제학하고 관련된 얘기는 거의 없다.

그런데 합리적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경제학의 정의는 주제와 연구대상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타 학문의 정의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경제학도 다시 그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경제학은 말 그대로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는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 분배까지 다 다루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이 아닌 방법론으로 경제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하는 데 한 가지 옳은 길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많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경제학 강의〉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다룬 학파만 최소 9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학에 학파가 아주 많다는 것을 잘 모른다.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케인즈주의 정도만 알 것이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자유시장주의만해도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오스트리아학파로 나뉜다.

흔히들 자유시장주의와 신고전학파를 동일시하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신고전학파 중에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자유시장주의 분파가 있는 것이다.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은 신고전학파는 맞지만 자유시장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들 3학파는 자유시장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분석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신고전학파에서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고전파 이론은 자본가, 지주, 노동자 계급의 역학관계를 다루는 계급이론이다. 신고전파에서는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개인의 선호라는 건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는 반면에 오스트리아학파는 개인이 사회의 산물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신고전파에서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놔두면 합리성이 작용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간섭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대가인 하이에크는 완전경쟁을 하는 경쟁이 어디에 있냐며 그건 마비상태이지 경쟁이 아니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경제학에 이렇게 많은 학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 학파들간의 도덕적, 정치적 가치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 같은 자유주의는 19세기 유럽에서 개인의 자유, 그 중에서 재산권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이에크가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의 쿠테타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배경에도 민주주의보다 재산권의 자유를 더 우선시하는 가치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고전파의 역사에서도 정치적 판단을 엿볼 수 있다. 원래 경제학은 이름 자체가 정치경제학이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신고전파 학자들이 경제학을 과학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라는 낱말을 없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파레토 원칙이었다. 파레토 원칙은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 그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다치면 그것은 개선이라고 불릴 수 없다는 개념이다.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파레토 원칙에는 아주 보수적인 측면도 있다. 기존 체제를 조금이라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수혜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 손해가 간다면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이다. 파레토 원칙도 정치적 견해인 것은 틀림이 없다. 똑 같은 분석을 놓고도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동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저임금 노동을 통한 생산활동을 노동착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제공으로 볼 것인지 견해가 갈릴 수 있다. 신고전파에서는 일단은 주어진 소득분배, 권력분배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나 찾아보자는 게 방법론이다. 하지만 도적적, 정치적 가치 차이 때문에 이론 자체가 마음에 들어도 그 가치판단에 동의를 못하면 그 이론을 따를 수 없게 된다.

둘째, 기본 개념의 차이와 세계의 확실성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학파간 차이가 존재한다.

경제학의 백화제방과 이종교배

경제학을 연구하는 데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며, 그 다양성은 도덕적, 정치적 차이 내지는 관심사의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개인을 강조하는 신고전파(주어진 개인)와 오스트리아학파(만들어진 개인)는 개인주의 이론으로 부를 수 있다. 고전파, 마르크스주의, 케인즈 학파는 계급이론으로 말할 수 있다. 이 학파들에서 말하는 개인의 소비성향은 그 사람의 계급적인 위치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이다. 확실성을 바라보는 데서도 학파간 구분이 뚜렷해진다. 고전파, 마르크스주의, 신고전학파는 확실성에 기초한 이론들이다. 특히 고전파나 마르크스주의는 아주 끔찍한 '철의 법칙'에 가깝다. 신고전파는 합리적 기대에 따른 예측에 가깝다. 반면에 오스트리아학파는 상당히 불확실성을 강조한다. 오스트리아학파나 제도주의 학파, 케인즈 학파에서 얘기하는 불확실성(uncertainty)은 모르는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신고전학파에서 얘기하는 리스크(Risk)는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셋째, 관심사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고전학파나 마르크스주의, 개발주의 학파는 생산에 관심이 많다. 아담 스미스가 책에서 제일 처음 쓴 건 시장이 아니라 '공장'이었다. 신고전파 이론은 교환에 중점을 둔 이론이다. 신고전학파에도 생산함수와 같은 개념도 있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아주 기계적인 관계로만 다루고 계속 교환 이야기만 한다. 신고전학파는 균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슘페터나 오스트리아학파 사람들은 균형보다는 변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어 신고전학파에서는 독점이 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까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는 코닥이나 제록스의 경우처럼 독점은 저절로 해소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경제학의 분파는 교환과 생산, 균형과 동학 등으로 구분되는 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차원이 아니라 보는 주제에 따라 유용한 이론과 덜 유용한 이론의 차이로 바라봐야 한다.

사실 학파들 사이의 경계도 모호하다. 칼 맹거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창시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맹거를 신고전학파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꼽기도 한다. 경제학이 분야도 넓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학의 여러 학파의 주장과 이론을 잘 알아야 복잡한 경제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우리가 자유무역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라고 단순하게 알고 있지만 설명하기가 아주 힘든 나라다. 싱가포르는 토지의 90%가 국유지고, 주택의 85%를 정부가 공급한다. GDP의 22%를 공기업이 생산한다. 세계평균인 8~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싱가포르란 국가를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통상적인 자유시장주의로도 마르크스주의로도 설명이 잘 안 된다. 이처럼 한 가지 이론으로만 설명이 어려운 경우가 참 많다. 여러 이론을 함께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제학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학파를 소개를 하고 있지만 단순한 경제사상사가 아니다. 대부분의 이론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주류인 신고전파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학파를 연구하고 있고,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쓰고 있는 이론들도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마케팅 회사에서는 계급이론이 가장 중요하다. 계급별로 표본추출을 해서 쇼핑 패턴을 분석하는 마케팅이 바로 계급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다. 주식회사가 처음에는 왕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회사형태였다. 이유는 주식의 분산으로 실패해도 자기부담을 덜 수 있는 매니저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었다. 아담

스미스를 포함한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주식회사를 반대를 했다. 자본이 집적되고 생산이 대규모가 되어야 사회주의가 온다고 생각한 마르크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다. 이 옛날 논쟁은 지금까지 전문경영인들의 도덕적 해이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경제학파 연구를 단순한 경제사상사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상사적으로 경제학파를 보게 되면 이론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무시하게 된다.

책에서는 개발주의, 또는 발전주의에 대해 많이 할애를 했다. 개발주의는 이론적으로 제일 약하기 때문에 천대를 받는데 실제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으로 하면 어떤 학파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해밀턴은 '관세에 관한 보고서'란 걸 썼다. 해밀턴은 이 보고서에서 18세기 말에 미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관세나 보조금을 통해서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정부가 운하 등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고, 은행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국채시장을 발달시키고, 특허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경제개혁을 직접 실천했다. 그런데 해밀턴은 경제학자도 아니었고, 따라서 정교한 이론도 없었다. 하지만 세상을 실제로 바꿔 놓은 차원에서 보면 케인즈주의보다 더 큰 공헌을 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도 사회주의 운동을 강화시켜 자본주의에 압력을 가해 계속 수정을 하게 만듬으로써 자본주의를 더 인간적인 제도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과거 학파를 공부하는 게 단순히 사상사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어떠한 단 하나의 이론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백화제방이 필요하다. 너무 단순화하면 쇼크에 약할 수밖에 없다. 2008년 금융위기가 났을 때 시카고학파에서는 케인즈학파가 다 틀렸다고 했는데 결국 정책담당자들이 가져다 쓴 것은 케인즈의 것이었다. 케인즈 이론을 버렸다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양성과 더불어 이종교배도 더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기존에도 슘페터주의와 개발주의가 보완적인 연구를 함께 수행하면서 발전했다. 심리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케인즈주의와 행동주의도 이종교배를 통해 행동금융을 탄생시켰다.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마르크스학파도 계급이론이라는 접점을 통해 상호 교류와 보완연구가 가능하다.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앙숙이었지만 세상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교배가 가능할 것이고 굉장히 재미 있는 이론이 나올 수도 있다.

결론은 경제학을 연구하는 데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며, 그 다양성은 도덕적, 정치적 차이 내지는 관심사의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그리고 과학적 기준처럼 이게 맞다 아니면 틀렸다 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모든 학파가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측면 때문에 경제학은 자연과학 같은 과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좀 더 세게 나아가면 경제학은 '정치적인 논쟁(Political Argument)'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장려하고 다양한 접근간의 이종교배를 장려해서 더 다양한 이론을 만들어야 우리가 복잡한 현실 경제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경제학 공부가 지적인 순수성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좀 더 낫게 하기 위해 다양성과 이종교배를 받아들이는 지적인 다윈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회동정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1. 한국국제정치학회

》 2014 연례학술회의

주제 : 한반도와 국제정치
일시 : 2014년 12월 5~6일(금, 토)
장소 : 국립외교원

2. 한국교육학회

》 연차학술대회

주제 : 창조사회에서의 행복교육
일시 : 2014년 6월 27~28일(금, 토)
장소 : 고려대학교

3. 한국행정학회

》 2014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주제 : 국가경쟁력 제고: 진단과 처방
일시 : 2014년 12월 12~13일(금, 토)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4. 한국사회학회

》 2014 후기사회학 대회

주제 : 불안의 시대, 사회학 희망을 찾다
일시 : 2014년 12월 20일(토)
장소 : 중앙대학교

》 2015 전기사회학대회 (2015년 6월경 예정)

5. 한국여성학회

》 2014 추계학술대회

주제 : 한국여성학 30+: 시간의 정치학과 젠더
일시 : 2014년 11월 22일(토)
장소 : 신라대학교

6. 한국언론학회

》 2014 가을정기학술대회

주제 : 언론학, 새로운 지평을 향해!
일시 : 2014년 10월 18일(토)
장소 :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외

7. 한국경영학회

》 제16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주제 : 창조와 도시번영, 그리고 미래경영
일시 : 2014년 8월 18~20일(월~수)
장소 : 호텔 인터불고 대구

》 동계학술대회 (2015년 2월 예정)

8. 한국 경제학회

》 제16차 국제학술대회 개최
주제 : "Post-Tapering Prospect of the East Asian Economy and Reshaping the Korean Economy"
일시 : 2014년 8월 11~12일(월, 화)
장소 : 연세대학교 대우관

》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예정)
일시 : 2015년 2월 24~25일(화, 수)
장소 : 연세대학교

9. 대한지리학회

》 2014 한중일 지리학대회
주제 : "The Local Bridging the Global"
일시 : 2014년 7월 6~9일(일~수)
장소 :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10. 한국정치학회

》 2014 추계학술회의
일 시: 2014년 9월 26일(금)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주 제: 선거·정당의 제도적 개혁과 한국적 민주주의

》 연례학술회의
일시 : 2014년 12월 12~13일(금, 토)
장소 : 국립외교원

11. 한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일시 : 2014년 8월 28~30일(목~토)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 2015 특별 심포지엄 (예정)
주제 : 脫폭력 in 심리학
일시 : 2015년 2월 13일(금)

12. 국제개발협력학회

》 2014 국제개발협력 학술대회
주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일시 : 2014년 12월 5일(금)
장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오전: 140-2동 4층 국제회의실)

13. 한국사회복지학회

》 2014 추계학술대회
주제 : 한국의 사회복지학 & 교육, 변혁을 말한다
일시 : 2014년 10월 24~25일(금, 토)
장소 : 목포대학교

14. 경제사학회

》 2014 경제사학회 연말학술대회와 정기총회
주제 :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사적 고찰
일시 : 2014년 12월 12일(금)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2층 세미나실

15. 한국문화인류학회

》 2014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 "감성의 인류학 : 향수와 한국사회"
일시 : 2014년 11월 14~15일(금, 토)
장소 : 영남대학교

학회장 변동사항

경제사학회 조석곤(상지대 경제학) 취임
국제개발협력학회 손혁상(경희대 공공대학원) 취임
대한지리학회 양보경(성신여대 지리학) 취임
한국경영학회 임채운(서강대 경영학) 취임
한국경제학회 이지순(서울대 경제학) 취임
한국교육학회 진동석(서울대 교육학) 취임
한국국제정치학회 김태현(중앙대 국제대학원) 취임
한국문화인류학회 유철인(제주대 철학) 취임
한국사회복지학회 윤현숙(한림대 사회복지학) 취임
한국사회학회 김무경(서강대 사회학) 취임
한국심리학회 신임학회장 이규미(아주대 교육대학원) 취임
한국언론학회 신임학회장 심재철(고려대 미디어학) 취임
한국여성학회 신임학회장 공미혜 (신라대 가족노인복지학) 취임
한국정치학회 최진우(한양대 정치외교학) 취임
한국행정학회 임도빈(서울대 행정대학원) 취임

협의회 행사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I. 협의회 회의

1. 제 2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14년 5월 22일(목) 8:00~9:00
장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2. 제 3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14년 9월 3일(수) 7:30~9:00
장소 : 플라자호텔 무라사키

3. 제 2차 이사회

일시 : 2014년 11월 28일(금) 12:00~14:00
장소 : 봉우리 종각점

4. 정기총회

일시 : 2014년 12월 5일(금) 17:00~18:00
장소 : 명동 유네스코 홀

II. 월례 세미나 "세계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

1. 제 2회 월례세미나

일시 : 2014년 8월 14일(목) 13:30~16:00
장소 :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20호)
발표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의 백화제방과 이종교배"

2. 제 3회 월례세미나

일시 : 2014년 10월 8일(수) 11:00~13:00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제회의실(303호)
발표 : James L. Perry (미국행정학회 PAR 편집장), "Forging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cience Research and Public Administration"

III. 사회과학연구진흥(SSK)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갑오년의 동아시아와 미래 한국: 1894와 2014"

주최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후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연구재단
일시 : 2014년 10월 24일(금) 9:30~18:00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210호)

협의회 행사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프로그램

개회식 : (9:30–10:00)
환영사 : 임현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축사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서태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전체회의 : 동아시아의 과거와 미래 (10:00–12:00) *영어진행
사회 : 황석만 (창원대 사회학과,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총무위원장)
발표 : 히라노 겐이치로(平野健一郎), 와세다대,
"All Started from Huang Zun–xian's
"Chao–xian Ce–lue": The Gabo Reform and the Three Wars
in the Context of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Regime"
브루스 커밍스 (Bruce Cumings), 시카고대,
"Japan as Number One: The American Preference for Japan
in the East Asian Order, 1894–2014"
류 더빈 (劉德斌), 길림대,
"The Collapse of East Asian Order and the Possibilities
of Rebuilding in the 21th Century"
하영선, 서울대, "1894 in 2014: The History of Future"

제1회의 : 갑오년의 사회경제사 (13:30–15:30)
사회 : 윤정로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과, 한국사회학회 회장)
발표 :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갑오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의 기억과 기념관
김동노 (연세대 사회학과), 동학농민전쟁, 갑오개혁 그리고 민족주의
김재호 (전남대 경제학부), 근대적 재정국가 수립과 갑오개혁
토론 : 김영범 (대구대 사회학과), 김필동 (충남대 사회학과),
왕현종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제2회의 : 갑오년의 정치외교사 (16:00–18:00)
사회 :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장)
발표 : 김현철 (동북아역사재단), 갑오개혁의 정치사적 의의와 현재적 시사점:
제2차 김홍집·박영효 내각의 성과와 한계 및 과제를 중심으로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갑오년의 국제정치 공간과 조선의 대응:
김윤식을 중심으로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동아시아의 꿈?:
세력전이 속의 1894와 2014
토론 : 은정태 (역사문제연구소), 이헌미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협의회 행사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Ⅳ. Social Science Korea 연합심포지엄 "한국사회과학의 신 경향"

주최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후원 : 한국연구재단
일시 : 2014년 12월 5일(금) 13:30~18:00
장소 : 명동 유네스코 홀

프로그램

개회식 (9:30–10:00)
개회사 : 임현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축사 : 서태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제1발표 (14:00–14:40)
사회 :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발표 : 류승호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인정과 사회통합"
토론 : 신종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제2발표 (14:40–15:20)
사회 :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발표 :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의 경우"
토론 :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제3발표 (15:40–16:20)
사회 :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발표 :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국가 레짐과 국가역량 및 정부기능의 변화"
토론 :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제4발표 (16:20–17:00)
사회 :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발표 : 윤택 (서울대 경제학부),
"정책 시그널의 모호성과 통화정책의 국가간 공조"
토론 : 정용승 (경희대 경제학과)

종합토론 및 사회과학협의회 정기총회 (17:00–18:00)

Ⅴ. 2014년 12월 KSSJ 41–2호 발간

Ⅵ. 2014년 12월 단행본 「나눔의 사회과학」 발간

소식란

1. 2014년 8월 4일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제 4대 회장을 역임하셨던 홍승직 고려대 명예 교수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2014년 8월 임현진회장님께서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3. 2014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2016년 취임 예정)으로 이진규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학회 임원진 소개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회장단

회장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
부회장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
부회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부회장	**이진규**	고려대 경영학
부회장	**김영석**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
부회장	**김복규**	계명대 행정학
감사	**조성남**	이화여대 사회학
감사	**신상협**	경희대 국제통상협력학

이사회

이사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명예교수)
이사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명예교수)
이사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명예교수)
이사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 (명예교수)
이사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명예교수)
이사	**정용덕**	서울대 행정학(명예교수)
이사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명예교수)
이사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명예교수)
이사	**한상복**	서울대 인류학(명예교수)

운영협의위원회

경제사학회	**조석곤**	상지대 경제학
국제개발협력학회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대한지리학회	**양보경**	성신여대 지리학
한국경영학회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
한국경제학회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
한국교육학회	**진동섭**	서울대 교육학
한국국제정치학회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한국문화인류학회	**유철인**	제주대 철학
한국사회복지학회	**윤현숙**	한림대 사회복지학
한국사회학회	**김무경**	서강대 사회학
한국심리학회	**이규미**	아주대 교육대학원
한국언론학회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
한국여성학회	**공미혜**	신라대 가족노인복지학
한국정치학회	**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
한국행정학회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학회 임원진 소개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총무위원회

공동 위원장(사무총장)
장원호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

공동 위원장
황석만 창원대 사회학

위원 **서문기** 숭실대 정보사회학

위원 **임석준** 동아대 정치외교학

위원 **이주헌** 서울시립대 행정학

위원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회

위원장 **손 열** 연세대 국제학

위원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

위원 **이정환** 국민대 국제학

위원 **정재용** KAIST 경영학

위원 **이용욱** 고려대 정치외교학

위원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

편집위원회

위원장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

위원 각 학회 편집위원장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진규** 고려대 경영학

위원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

위원 **변종국** 영남대 경영학

위원 **손승영** 동덕여대 여성학

위원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

위원 **최영종** 카톨릭대 국제학

MEMO

MEMO

설렘이 열리다
그 시작은 당신의 엣지로부터

이것은 한번도 열린 적 없던 창

또한,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

모두가 꿈꾸던 혁신은

당신의 빛나는 엣지가 되었다

Samsung
GALAXY **Note** Edge

• 새로움을 여는 혁신적 디스플레이 **Edge Screen** • 방해 없이 대화면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Interruption-free View**

• 다양한 패널로 편리하게 쓰는 **Edge Screen 편의 기능** ※ 실제 제품 화면은 사용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AMSUNG

KOSSREC

(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110-0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04-28

T. 02 735 2159 **F.** 02 737 3264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304-28 Sajik-dong, Jongno-ku, Seoul 110-054, Korea

Tel: 82-2-735-2159 Fax: 82-2-737-3264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